

##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도민 일상회복 총력”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부여와 청양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부여(왼쪽), 청양(오른쪽)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맹철영

道 정부에 빨빠른 지원 요청

복구비 최대 80% 국비 지원받아

피해 복구 작업 가속도 기대

보령 청라면 추가지정도 건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사유시설과 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진 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 부여·청양 2곳과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등 10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특히 도는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달라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정부에 부여와 청양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요청했으며, 16일 부여·청양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보령 청라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찾아 긴급 일손돕기를 진행했으며,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4-H연합회는 18일 청양군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mm로, 부여 431.5mm, 청양 404.5mm, 보령 392.5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등 331건 21억 원이다.

〈관련기사 8면〉

/김정원 jwkim87@korea.kr  
/자연재난과 041-635-3255

##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 확보

공주·보령·논산·금산 등 9곳 지정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으로, 첫 해인 올해는 7500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이다.

충남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년간

420억 원, 인구감소지역인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9곳은 기초지원계정으로 2년간 총 1302억 원 등 총 1722억 원을 확보했다.

금산은 기금을 통해 백암산 등에 시설을 갖추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도입한다.

청양은 ‘청년&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 조성’ 등을, 부여는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각각 추진한다.

충남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년간

양극화대책담당관 041-635-3335

### 모바일 충남도정신문 운영



충남도정신문은 ‘카카오 뷔’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충남도 정신문’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계룡세계軍문화  
EXPO  
2022.10.7(금) ~ 10.23(일)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

**K-Military, 평화의 한마디**

**메인 공연 |** 계룡세계군악의장 콘서트, 로드퍼레이드, 뮤지컬 갈라쇼  
**프로그램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투 및 기동시범, 고공강하시범, 육해공군의 날, K-MILITARY 경연대회,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대 영내투어  
**체험 |** 군무기장비 전시·탑승, 헬기탑승 투어, 병영훈련·서바이벌·사격훈련 체험  
**국제회의 |** 계룡세계평화포럼  
**전시관 |**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주최 충청남도 계룡시  
주관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일+쉼’ 워케이션 충남 조성…“지역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야놀자 등과 간담회  
서해안 관광벨트 연계상품 개발  
내년 시범 운영, 2024년 추진

충남도가 ‘워케이션 충남’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일과 쉼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자 최신 여행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도내 관광산업에 접목해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끈다.

도는 8월 22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

남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야놀자 등과 워케이션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관광지 등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코로나19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 기반이 조성되며 확산하기 시작했다.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해 도는 충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서해안 신관광벨트와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및 상품을 개발한다.

이번 간담회에 이어 포럼(10월)과

숙박업체 설명회(11월) 등을 열고, 타시도 벤치마킹도 실시한다.

내년에는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 주제 발표는 김경필 모라비아앤코 글로벌본부장이 ‘워케이션 충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가졌다.

김 본부장은 “워케이션을 통해 관광업계는 새로운 관광 시장을 만들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지역은 관계 인구 효과로 소멸을 막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들이 워케이션 충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어 “충남은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이 더 풍부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경쟁하고 차별화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는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등

서해안을 여행과 레저, 공주·부여·청양·예산·금산·계룡·논산·홍성을 휴식과 힐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워케이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과 041-635-3881



“희망·통합의 대한민국 함께 만들자”

충남도는 8월 1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광복의 숨결, 힘찬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경축식은 충훈탑 참배, 유공자 표창, 경축사, 광복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운영지원과 041-635-3513

##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9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대상  
업체당 최대 1억…대출 기간 2년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9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

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체에 확대 지원한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

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http://www.cnfund.kr))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 041-635-2223

## 전시 행정 전환 준비상황 최종 점검

2022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전쟁, 테러 등 비상 대비 훈련

충남도는 8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열고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전시 행정 체제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사·정부 연습상황 보고, 실·국·본부 상황 보고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을지연습은 8월 25일 상황 종료 시 까지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도와 시군, 주요 공공기관, 중점관리업체 등 190여 개 기관 6200여 명이 참여한다.

국지 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연습’, 기관 소산 훈련 등 ‘전시 전환 절차 연습’, 전쟁 벌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신냉전 기류 형성, 동북아 각국의 상호 영향력 확대 노력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의 대남 국지 도발 등을 가정한 가상 상황을 조성, 충무3종사태를 선포하고 연습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각 실·국·본부의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연습할 중점사항을 최종 확인했다.

/안전정책과 041-635-2174

등 총 25개 분야 1600개소이다.

올해는 중·소규모 및 화재 취약 노후시설, 철거공사장, 출렁다리, 캠핑장 등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신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량, 저수지, 고층 건물은 드론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재난과 041-635-3286

## 10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건축·시설물 등 1600곳 안전 점검

충남도는 ‘2022년 충남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내 1600개 시설을 안전 점검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해 위험 시설물과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 건축물, 시설물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 올 가을 軍문화엑스포 개최…K-밀리터리 세계에 알린다

10월 7~23일까지 계룡서 열려  
 군 의식주, 무기, 첨단기술  
 군문화 콘텐츠 최대규모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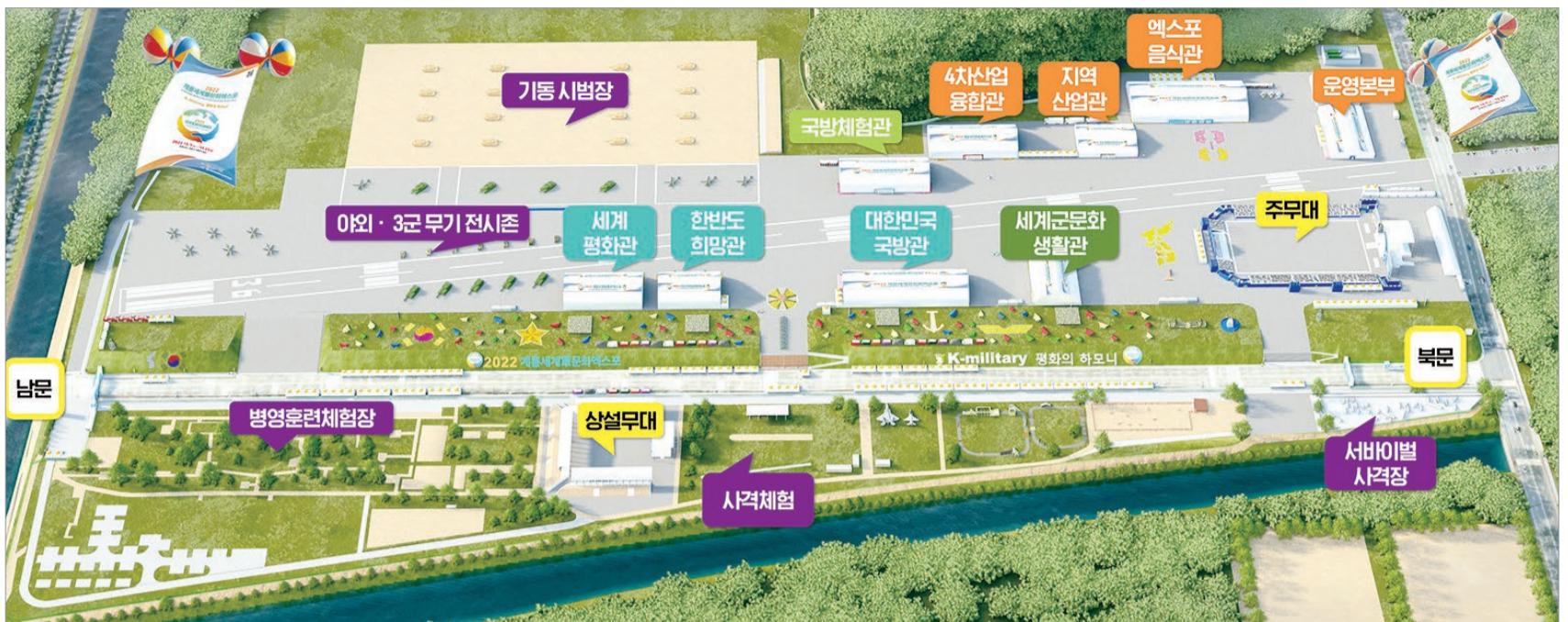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오는 10월 7일부터 17일간 충남 계룡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전쟁 역사와 군의 의식주, 무기, 첨단기술 등 군 전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행사다. 군악·의장대 콘서트와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밀리터리 경연대회, 세계 군악의장대 공연 등 군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 세계 유일 종합군문화축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웅장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에서 열려 의미가 깊다. 관람객에게 다양한 군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평화관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등 7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장비 탑승, 서바이벌, 사격훈련 등 이색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또 해외군아대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미국, 영국, 멕시코 등 9개 국의 군악대가 참가해 시범을 보일 예정이다. 이 외 기존 병영체험과 연계해 지역 관광 콘텐츠의 메카가 될 병영체험관을 건립한다.

## 글로벌 K-POP 경연대회

군문화엑스포 기간 K-POP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거주 국내·외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글로벌 K-POP 경연대회가 열린다. 참가분야는 K-POP 댄스, 보컬로, 9월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팀의 본선 진출자들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10월 18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메인무대에서 본선대회 공연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연대회는 일부 관람객들이 군문화라는 주제를 생소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K-POP 콘텐츠를 군문화엑스포에 접목했다. 예선 신청 접수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와 공연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다채롭게 펼쳐질 이번

경연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마스코트 ‘비룡이’ 맹활약

군문화엑스포 캐릭터인 ‘비룡이’가 엑스포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비룡이는 2020년 전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육·해·공군, 각 軍을 대표하는 3마리 용으로 탄생한 캐릭터이다. ‘비상하는 계룡’의 줄임말로 계

룡시의 상징인 용을 귀엽고 친밀하게 표현했다. 조직위는 그동안 비룡이 캐릭터를 활용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엑스포 홍보에 힘썼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 마스코트 경연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있다. 10월 7일부터 개최되는 행사기간 중에 활주로 로드퍼레이드, 계룡대 AR 비룡이 찾기 게임 등 비룡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입구를 비롯해 전시관, 음식관, 체험부스에서도 캐릭터, 굿즈 등을 판매·전시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입장권은 전국 농협은행과 계룡시 관내 농축협 지점 4개소, 국민은행 충청지역 67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에서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다.

/김정원 jwkim87@korea.kr

## 마스코트 ‘비룡이’

육·해·공군, 각 軍을 대표하는 3마리 용으로 탄생한 캐릭터



# 머드·해양신산업 발전 디딤돌 놨다…보령머드박람회 대장정 마무리

관람객 135만 명 당초 목표 초과  
 전시회 해외 5개국 84개 기업 참여  
 수출상담회서 500만 달러 규모 상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첫 국제행사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31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전 세계인이 모여 축제의 장을 연출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는 머드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머드를 중심으로 한 해양신산업 육성 의지를 안팎에 천명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8월 15일 박람회장 1계이트 앞 1주차장에서 관광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머드박람회 폐막식을 개최했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

로 열린 머드박람회는 당초 목표인 120만 명을 넘어선 135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 사업도 목표액 57억 5000만 원을 초과한 60억 3000만 원을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국제행사의 사업비 대비 수익 평균인 19%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며 “머드박람회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성과는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람회 전시회에는 요르단 등 해외 5개국 84개 기업이 참여하고,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바이어 25명이 참가해 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산품 홍보관에서는 15개 시군 21개 기업이 참여해 도내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했으



‘해양머드&신산업관’에 마련된 해외홍보 부스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키도 했다.

이와 함께 해양머드웰니스 컨퍼런스, 축제산업화 세미나, 환황해 포럼 등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

전략을 도출했다.

폐막식에서는 초청가수 공연과 한복페션쇼, 박람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탐임캡슐 세리머니, 해상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이 진행됐다.

/해양정책과 041-635-4766



관람객들이 머드 체험을 하며 즐기고 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전경.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제공

# ‘리브투게더’ 국가정책화 추진한다

국정·도정과제 추진계획 토론회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하고  
공공형 택시 확대 등 도비 확대

충남도가 건설교통국 분야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공유 및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8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도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도는 정부동향을 파악해 도정과 국정과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민선 8기 내 도정과제 추진을 목표로 중단기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국가계획 반영(수정)과 예타면제 건의 등을 추진하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온천도시

등은 도·시군 총력대응을 통해 타 시도보다 많은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천안·아산 키즈파크 시범조성, 원도심 빈집 재개발 시범사업 등 도정과제는 선도모델을 마련해 국가정책화를 추진한다.

도정과제 중 100일 중점과제인 ▲리브투게더 ▲천안, 공주, 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M버스 노선 신설 ▲천안·아산-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케이티엑스(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행정 중심복합 혁신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와 시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올해 2회 추경에서 용역비,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대응에 힘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

성조사 통과 및 면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민선 8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 과제 실행 방안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는 빠른 시일 내 첫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민선 8기 내 5000호를 건립한다.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는 노선 버스 운행체계를 개편하고 마을택시 등 공공형 택시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태안고속도로 건설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수정·반영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2서해대교 및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수정·반영되도록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정책과 041-635-4611

## 시제품제작 전문가 상담 서비스 운영

(예비)창업자, 일반인 대상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메이커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터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로, 상품성 높은 아이디어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 제품 설계 지원과 신제품 개발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 상담을 진행한다.

지역 내 (예비)창업자, 일반인, 메이커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충남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내 시제품제작터 장비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87

## 인니 서자바주와 우호 협력 확대

교류 공무원 초청 행사 개최

충남도는 8월 12일 천안·보령 일원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교류 공무원 초청 행사를 열고 우호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서 양 지방정부가 그 동안 이뤄낸 교류·협력 사례를 토대로 교류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어온 관계를 발전시켜 인적·기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서자바주 스마트시티 전기차량 충전소 보급사업(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케이팝(K-POP) 등 청소년 문화 교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초청 등을 논의했다.

서자바주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



르타와 인접한 지역으로, 면적은 3만 537㎢이고 인구는 2019년 기준 4931만 명에 달한다.

/국제통상과 041-635-2254

도정만화



신명환

## 글로벌 3개사 4700만 달러 외자유치

천안·홍성산단에 공장 신·증축

향후 5년 수출효과 3580억 기대

충남도가 반도체용 특수ガ스, 산업용 축전지, 고급 바닥재타일 생산 글로벌 기업 3개사를 유치했다.

도는 8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 남일중공업, 동신포리마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은 천안과 홍성 산업단지에

총 4700만 달러를 투자해 제품 생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한다.

이번 외자유치는 민선8기 들어 처음이다.

도는 각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5년 동안 7500억 원의 매출 신장과 3580억 원의 수출 효과, 16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는 투자환경 조성 확대와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투자하기 더 좋은 충남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5

##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전통시장, 박물관 시설물 대상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취약 시설 90여 곳을 대상으로 9월 7일까지 안전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박물관 등 시설물 90개소와 승강기 7

개소다.

건축, 토목, 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한 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주요 구조부 안전 상태 ▲전기·가스·기계 설비 관리 상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작동 상태 등 관리 실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사회재난과 041-635-3288

## “안전의식 높이고 즉석사진 찍어요”

안전체험관 ‘안전! 네 컷’ 이벤트

충남소방본부는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체험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안전! 네 컷’ 이벤트를 진행한다.

즉석 인화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안전체험을 완료한 체험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9월 8일까지 계속된다.

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체험객은 체험관 1층에 마련된 스마트카드 포토존에서 촬영 후 현장에서 즉석 인화

된 사진을 받을 수 있다.

안전체험을 마친 뒤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충남안전체험관은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진과 산불, 태풍이나 수난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체험은 안전체험관 누리집(<https://safe.cn119.go.kr>)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충남안전체험관 041-659-9730

## 비가 한 ‘보시락’ 만 와두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 비의 양

“비가 한 보시락만 와두 가물이 점 들허겄년다.”

농사는 날씨가 풍흉을 움직인다. 특히 철 따라 내리는 비는 농사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저수지가 넘쳐나는 지금도 가뭄은 농사에 치명적이다. 하물며 예전의 농업은 더할 나위 없었다.

전통 농업은 강우량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비가 와야 작물을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었다. 특히 봄비는 1년 농사를 판가름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봄은 비가 적은 계절이다. 봄마다 가뭄이 들고, 농부들은 마른 흙을 바라보며 비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보시락’의 표준어는 ‘보시락’이다. 표준어국어대사전의 풀이는 보습이 들어갈 정도로 내린 비의 양이다. 그런데 충청도의 ‘보시

락’은 의미가 조금 달라 보인다. 어떤 이는 호미로 땅을 패울 때 마른 흙이 보일 정도의 비라 한다.

어떤 이는 괜이로 땅을 찍었을 때 마른 흙이 보일 정도의 비라 한다. 또 어떤 이는 농기구로 땅을 패울 때 손바닥 깊이만큼 빗물이 밴 것이라 한다. 누구는 쟁기로 밭을 갈았을 때 보습의 끝에 마른 흙이 보일 정도라 한다.

맡은 다르지만 ‘보시락’은 같은 의미다. 호미나 괜이로 땅을 패울 때나, 손바닥의 깊이나, 뱃을 가는 쟁기의 날이 들어가는 깊이는 다 비슷하다. 대략 15cm 내외다. 마른 흙이 이만큼 젖을 정도면 15~20mm 정도의 강우량이다.

이 깊이는 밭작물의 뿌리가 범어있는 깊이다. 그러니까 한 보시락의 비가 내리면 밭작물은 뿌리 까지 빗물에 젖는 것이다. 다시 가물면 말라버리겠지만, 당장은 밭작물의 목마름을 해결할 만큼의 강우량이 충청의 ‘보시락’이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씩 지원

충남 거주 19~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급  
충남넷서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조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

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자격 여부는 충남넷(www.chungnam.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

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공통으로 필요하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시군과 함께 홍보 및 사전준비 등을 추진해왔다.

/청년정책과 041-635-2294



**구조이송 첫 해상 합동훈련** 충남도는 해상에서의 다중인명사고 및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상황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구조이송 첫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도 병원선과 보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됐다. /보건정책과

## 복합공간 ‘천안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개관

주거 기능, 공공기관·기업 입주

천안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이 될 ‘천안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다.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위치한 도

시재생어울림센터는 행복주택, 공공기관, 스타트업 기업체 등이 입주하는 복합 상생 커뮤니티 공간으로, 천안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갈 시설이다.

연면적 1만 9510.63m<sup>2</sup>, 지하 2층, 지

상 18층 규모로, 1층은 상생협력상가, 스타트업파크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2~5층은 연구개발(R&D) 허브센터, 4~18층은 주거공간(행복주택 150호실)이다.

/건축도시과 041-635-4660

## 충남서 지적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본다

9월 원서접수 10월 실기시험

충남도는 지적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유치에 성공해 오는 10월 첫 실기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시험장은 청양군 충남도립대 지적측량실습장에 설치되며, 도

는 원활한 시험장 운영과 지적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립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9월 5일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시험부터 충남도립대 지적측량

실습장에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연간 시험 횟수는 2~3회(기사, 산업기사)이다.

도는 청양군을 찾는 수험생 및 가족들에게 지역홍보 등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1

## 급경사 오르고 하천 건너 산불 잡는 소방차

산불전문진화차 서산에 배치  
공주, 청양, 천안 추가 도입

충남소방본부는 급경사지는 물론 하천 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산불전문진화차’를 서산 소방서에 도입했다.

충남 지역에 처음 배치된 산불전문진화차는 4륜구동으로, 임동 등 최대 45도의 급경사지를 오를 수 있어 신속

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압 펌프를 탑재해 이동 중에도 계속 방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수 타이어를 장착해 최대 1.2m 수심의 하천이나 웅덩이도 이동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하반기 공주와 청양 소방서, 내년에는 천안동남소방서에 산불전문진화차를 추가로 배치해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총력 대응

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다.

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다

# 치매 노인 실종 대응체계 구축 '효과'

수색시간 10→6시간대로 단축

충남소방본부가 '119수색구조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실종 치매 노인 수색 시간이 기존보다 3분의 1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치매 노인 실종사고는 48건이며, 평균 수색 소요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인 10시간 18분 대비 약 33% 감소한 수치이다.

119수색구조대응체계는 실종 사건 발생 시 마을 지리와 평소 실종자의 행동 습관 등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와 이통장들로 마을수색대를 꾸려 수색을 진행한다.



소방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소방드론 동원 등 도 단위 광역 드론 수색팀도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실종 이력이 있는 노

인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회감지기도 보급 할 예정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731

## 도민과 함께 안보·안전 지킨다 을지연습 연계 안보·안전 체험

충남도는 8월 23일 도청에서 육군32사단과 함께 2022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도민 안보·안전 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안보·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했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재향군인, 학생 등 안보·안전에 관심 있는 도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화생방 방호시설 견학 ▲을지연습장 견학 ▲안보 영상 시청 ▲군용 방독면 등 군수물자 관람 ▲119종합상황실 견학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안전 분야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울러 각종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사진 전시도 관람하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정책과 041-635-5621

# 2022 충남 사회조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조사목적**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방문면접조사 2022년 8월 12일 ~ 9월 4일 인터넷 조사 2022년 8월 12일 ~ 8월 21일

**조사지역**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사대상** 15,000 표본구 (만15세 이상 가구원)

**조사내용**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 특성 등 12개 영역

**실시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일반통계  
제213009호

※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 관**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설계/분석 GLOBAL RESEARCH™

## 청년농부들의 이야기, 슬기로운 농부생활

### 18~21일 '농(農)UP 페스티벌'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8월 18~21일 '농(農)UP페스티벌'이 열렸다.

'농(農)UP페스티벌'은 한국4-H중앙대회와 연계해 도 농업기술원과

충남4-H연합회·4-H본부가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힘쎈 충남, 힘쎈 4-H'라는 슬로건 아래 페스티벌, 체육행사,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쌀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청양군에서 긴급 수해 복구 활동도 펼쳤다.

둘째 날은 충남4-H회와 시군을 알

리기 위한 게임, 빙 깡통이나 빙 플라스틱 음료 컵을 가져오면 모종으로 교환해 주는 탄소중립 캠페인 활동,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흥보부스 운영 등 참여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셋째 날에는 승계농의 '꿈을 일구는 4-H, 청년농부 이야기' 청취를 시작으로, 한마음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천 결의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다짐했다.

마지막 날은 환경정화 캠페인을 진행한 후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152

## 천흥사 폐사 후 전전한 동종

###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 - 천흥사 동종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이며,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국보·보물급 유물이 소장되어있는 곳이다. 다만 많은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만큼 국내 연고지역을 떠나 보관돼 있는 문화유산도 많은데, 충남을 연고로 하는 유물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국보 천흥사(天興寺) 동종(銅鐘)이다.



천흥사 동종

지역을 전전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조선 인조시기에는 남한산성에서 병사와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 후 잠시 행적이 묘연하였는데, 1910년 일본인 요시다 쿠스케(吉田九助)가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으로 동종을 매각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왕가박물관은 1909년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한국 최초의 박물관으로 창경원박물관, 이왕직박물관 등으로 불리다 1938년 덕수궁 내의 이왕가미술관에 통합되었고, 1969년 국립박물관에 그 소장품이 통합되면서 천흥사 동종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되었다.

천흥사 동종이 명문을 통해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입을 통해 국립박물관의 소유가 된 문화유산이 다시 연고지역으로 돌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박물관을 찾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흥사 동종의 뛰어남을 알리고 있는데, 절터만 남은 천흥사나 충청남도에 돌아오는 것이 좋은 병안은 아니다. 다만 이번 칼럼으로 많은 도민들이 충남의 문화유산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작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천흥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산에 위치하던 사찰로, 후삼국 통일 후 창건되었고 조선 전기에 폐사되어,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동종은 창건보다 조금 늦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어 수백년 동안 천흥사를 지켜왔다. 하지만 동종은 천흥사가 폐사된 이후 여러

/김주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운영부 연구원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 태안에 미술인 창작스튜디오 만든다

도·현대도시개발 업무협약 체결  
현대 스튜디오 건립, 도가 운영  
내년 8월 가동…입주작가도 선정

충남 태안에 국제적인 수준의 미술인 창작 거점이 탄생한다.

도내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 작가들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펼치며 충남 미술 발전을 이끌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충남도는 8월 17일 태안 기업도시 내 솔라고리조트에서 현대도시개발과 충남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창작스튜디오는 현대도시개발이 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해 짓고, 도가 20년 간 무상으로 대여해 운영한다.

천수만 B지구 태안읍 반곡리에 들

어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건축 연면적 1240㎡에 스튜디오 10개동, 전시동, 공방, 세미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도시개발이 부지 비용과 건축비 등 40억 2000만 원을 들이고 도가 20년 간 운영비 50억 원을 투입한다.

건물 보험 가입과 하자 보수, 고정집기 교체 등도 현대도시개발이 부담 키로 했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매년 한 차례 공모를 통해 입주 작가 10명을 선정한다.

1년 동안 1명 당 1개 동의 스튜디오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 작가는 스튜디오에서 작품활동을 펼치며 개인 전시회를 갖고, 주제기획전·릴레이전·오픈스튜디오·성과전 등에 참여한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또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 입주 미술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에게 전

문적인 미술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워크숍, 미술품 판로 개척,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해 입주 작가를 지원한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미술기관과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입주 작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공방·주말 예술학교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600여개 창작스튜디오연합회인 국제레지던시협회 가입을 추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혀 해외 창작스튜디오 교환 입주나 전시 교류 등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충남창작스튜디오 건립·운영 시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충남미술관 전시·소장 작품 수집 및 맞춤형 작품 생산, 충남 미술 연구 분위기 조성, 공공 예술 교육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정책과 041-635-3824

## 찾아가는 자치경찰 전시회

12월 12일까지 도내 17곳 전시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자치경찰’ 전시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도청에서 진행한 전시회를 마치고, 도민 대상 홍보를 위해 12월 12일 까지 시군청, 대천역, 의료원, 공주대 등 17곳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 작품은 자치경찰 포스터 공모 전 대상 수상작인 김성철 씨의 ‘더 환하게, 더 안전하게! 충청남도 자치경찰’을 비롯한 수상작 10점과 충남 자치경찰 활동사진 수상작 10점 등 총 20점이다.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8월 일정은 29일까지 충남도서관, 29일부터 9월 5일 부여군청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9월은 5~13일 서천군청, 13~19일 금산군청, 19~26일 논산시청, 26~10월 4일 공주시청이다.

10월은 4~11일 인재개발원, 11~17일 태안군청, 17~24일 당진시청, 24~31일 홍성군청에서 전시회를 연다.

11월은 10월 31일~11월 7일 대천역, 7~14일 도교육청, 14~21일 도경찰청, 21~28일 홍성의료원, 28~12월 5일 경제진흥원이며, 12월 5~12일 천안의료원, 12~19일 공주대에서 마지막 전시회를 개최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903

## “음식 조리·섭취 전 꼭 손 씻으세요”

### 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캠페인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생활 속 실천 ▲음식점 안전조리 요령 ▲음식 조리·섭취 전 손씻기 ▲안전한 식사를 위해 온도 지키기 ▲배달 또는 포장 음식은 빼는 시간 내 섭취하기 ▲안전한 김밥 조리요령 ▲식재료 세척 소독 등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42

## 충남 귀어학교, 성공적 어촌정착 지원

### 귀어학교 졸업식…교육생 20명

교육과 체류형 실습과정에 대해 도의 귀어귀촌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등 실질적으로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력수상저지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반을 운영 중이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4

### 게임물 건전이용 교원연수

### 메타버스 활용 교육도 실습

과연계형 체험 및 게임물 건전이용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Zoom)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 지도방안을 학습하는 게임물 건전이용 과정과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실습하는 메타버스 교과연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76



바이러스에 강한 백합 신품종 개발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바이러스에

강한 트럼펫 백합 신품종인 ‘캔디밸’과 ‘골든타워’ 2품종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했다. 이번에 개발된 트럼펫 백합(Trumpet lily)은 중국 서북부 산간지에 자생하는 저온성 백합으로, 바이러스에 강해 다년간 구근 재사용이 가능하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406

## 청출어람 청어람 - 스승의 그림자를 지우다

###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여정

전주에서 개업한 “개척사” 간판집은 호황을 이루었고 이응노의 가산은 풍족해져서 고향에 돈을 보내어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러나 늘 마음에 품었던 화가로서의 완성은 멀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지집에 초대를 받아 길을 나서게 되었다. 어슴푸레 달빛이 내린 초저녁 길을 서둘러 가던 중 대나무 숲에 다다르게 되었을 무렵 때마침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빠삐한 대나무 숲을 이리저리 휘저었다. 이응노의 삶에서 대나무 숲이 바람에 일렁이는 광경을 처음 마주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이응노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 스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벗어나려했던 그 처절한 몸부림, 자신을 가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뛰어내고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환한 빛! 대나무 숲과 광풍의 조우는 이응노를 일깨웠고, 살아 숨 쉬 것, 기운생동함, 자기로부터 혁신되는 예술정신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기나긴 무명 화가의 길을 걸어온 지 7년 만의 깨달음, 이응노는 스승의 그림자를 지우고 바람이 일렁이는 대나무 숲에서 보았던 살아 꿈틀거리는 자신만의 대나무를 완성했다. 그리고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을 계기로 매해 수상하였고 화가로서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통의 계승이란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의 혁신을 고민하게 된다.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 ▶ 작품설명

두 작품 모두 1940년대 작품으로 스승의 작품형식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간결하고 불규칙하게 뻗은 대나무와 자유 분방하게 여러 방향으로 흘날리는 대나무 잎들, 중봉으로 톡톡 쳐낸 고석과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잎들.

※1933년 스승 해강 김규진 선생이 별세하신 후 이응노는 규원 정병조 선생께 호 고암顧庵을 받는다.



고암이응노, 대나무, 한지에 고암이응노, 1940년대 수묵, 138.5x34cm, 1940년대 수묵, 127.5x32cm, 1940년대

# 충남도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전격 지정

## 보령시 청라면도 추가 지정 총력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며,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구체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과 수해피해 현황을 살펴본다.

/김혜동 khd1226@korea.kr



### ■ 국고지원기준(우심) 혜택

- (공공시설) 복구금액의 50% 국고 지원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70% 국고 지원
- (간접지원 항목) / 18개 지원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면제
  - 지방세 등 감면 : 재산세 감면 및 납세유예(1년)
  - 복구자금 융자 : 시설 복구자금 융자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국세 납세유예 : 감면, 면제, 납세유예(9개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국고 추가 혜택

-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국고 추가지원 (공공 + 사유)
  -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지방비 총부담액의 57%에서 72.8%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
- (간접지원 추가 항목)
  - 건강보험료 경감 : 보험료 30~50% 경감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요금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정액 감면

### ■ 충남도 피해현황 ○ 누적 강우량: 평균 297.4(밀리미터) / 최고 - 부여 431.5, 청양 404.5, 보령 392.5(8월 8일~16일)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강우량 (mm)	계	253	318	392.5	296	202	353	376	234	160	431.5	229.5	404.5	284	311	216
	8~11일	181.3	255.7	278.5	201.3	183.4	181.6	208.1	196.1	84.2	233.4	191.8	261.5	222.9	213.7	201.5
	12~16일	71.7	62.3	114	94.7	18.6	171.4	167.9	37.9	75.8	198.1	37.7	143	61.1	97.3	14.5

#### ○ 피해현황(8월 22일자 기준)

- 인명피해 : 사망 2 (부여군 방문자), 부상 1 (청양군 장평면 주민)
- 시설 피해(1145건, 366억원) : 공공시설 814건, 사유시설 331건
- 농작물 침수피해 : 1645호(1123.8HA) 침수 1117.3HA
- 이재민 : 부여 75세대 111명 중 18세대 37명 미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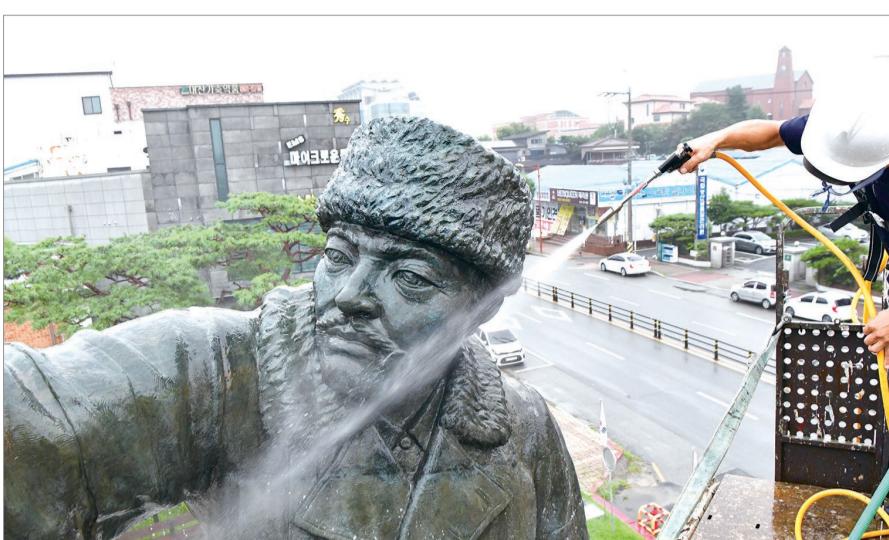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 ※ 읍·면·동은 해당 시·군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이며, 국고기준의 1/4을 초과

### ■ 선포 절차



그래픽/김선이



## 목욕재계하는 독립 영웅들

[홍성]홍성군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고압세척기와 작업차를 이용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인 결성면 만해리에 있는 한용운 선생 동상과 홍성을 고암리에 세워진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김좌진 장군의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 “신정호 아트밸리로 누구나 모여라”

9월 4일 신정호수 야외음악당서  
셔플댄스 플래시몹 퍼포먼스 등

[아산]충남 아산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지회장 이동현)가 주관하는 ‘2022 제1회 범 아산시민 퍼스티벌’이 오는 9월 4일 신정호수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퍼스티벌은 ‘아산의 힘! 신정호 아트밸리로 아산 시민 누구나 모여라’란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움츠렸던 아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시민화합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는 셔플댄스 플래시 몸 퍼포먼스 및 합동 콘테스트와 화합 대잔치 대중예술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플래시 몸 콘테스트는 셔플댄스를 활용해 미리 준비된 동작을 훈련한 아산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협력하는 군무를 선보이게 되며 이어지는 대중 예술 공연에서는 관내 예술인들이 공연에 나서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플래시 몸 행사를 위해 아산의 테마음악을 셔플 형식으로 만든 후 음악에 맞는 안무를 만들어 완성된 셔플 댄스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아산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플래시 몸 콘테스트 참가신청(플래시 몸 자유 참가자는 해당 없음)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예총 아산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본선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문의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1팀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팀 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5팀 상금 각 30만원과 트로피 및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동현 지회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제공

## 보령시, 대한민국 올해 최고 휴가지 등극

네비게이션 티맵 검색 1위  
보령머드박람회 흥행 요인

[보령]보령시가 티맵모빌리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소로 대천해수욕장(4만 7272건)이 선정됐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무더위 등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고의 여름 휴가지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15일 폐막한 2022보령 해양머드박람회에 당초 목표인 관람객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전경.

120만 명이 넘어선 135만 4000여 명이 다녀 갔으며, 무창포해수욕장을 방문한 31만 여 명과 소규모 해변인 용두해수욕장과 독산해수욕장 등의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도 한 몇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천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후 2년 간 강릉 경포해변이나 인천을 왕리해수욕장에 밀려 2~3위에 그쳤으나,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린 제25회 보령머드축제 등에 힘입어 1위로 올라섰다. 이밖에 청라 냉풍욕장에는 7월27일부터 8월18일까지 약 8만 5000여 명이 다녀가 무더위에 최고의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보령의 대표 관광지임을 입증했다.

여름철 성수기 운영 기간에 약 2만 5000여 명이 다녀간 성주자연휴양림은

전국 제일의 명품휴양림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티맵모빌리티는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총 21일간 티맵에서 전국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5개 유형의 여름 휴가지를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소가 대천해수욕장으로 밝혔다고 발표했다.

/보령시 제공

## ‘맘마미아!’, 혼인상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세상

###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는 그리스의 시원한 바다와 섬, 초호화 배우들의 춤 실력과 아바(ABBA)의 흥겨운 노래로 큰 인기를 누렸다. 영화는 결혼을 앞둔 소피가 아빠를 찾기 위해 엄마 도나 몰래 엄마의 옛 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소피의 엄마 도나는 미혼모이다. ‘맘마미아’의 작가 캐서린 존슨은 저소득층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던 가난

한 전업작가 싱글맘이었다고 한다. 아바(ABBA)의 노래(I Have A Dream)처럼 꿈을 펼치기 위해 희곡을 쓰고 있던 어느 날 ‘아바(ABBA)랑 같이 일해 보실래요?’라고 작가를 섭외하는 기적 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영화 속 도나와 소피 모녀는 거침이 없고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인다. 영화 밖으로 나와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아마도 ‘맘마미아’의 주인공 도나 역시 임신을 사실을 알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쁠 것인지 말 것

인지, 기른다면 어떻게 길러야하는 것인지, 지원은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힘든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조사’(2018)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며(82.7%), 혼전임신에 대한 비난(70.2%)을 경험하고, 대중매체 속 부정적 묘사(71.3%)를 접했다고 한다.

응답자의 80.5%는 미혼모 본인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직장에서는 권고 사직(27.9%), 학교에서는 자퇴(11.6%)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렵게 아이를 선택한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되기를 선택한 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부모님’이라는 말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들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에 앞서 미혼모·부 당사자들의 책임부터 묻고 있다. 개인의 주체적 결정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주체적인 선택에 대한 존중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임우연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징어 풍어에 깜짝…태안 신진항 소비자들 ‘북적’

## 현장포

8월 중후반 수확기 절정 맞아  
20마리 1상자 5만 원에 거래  
통오징어찜·물회 미식가들 유혹

**[태안]**오징어배들의 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 신진도수산물시장에도 오징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폭우로 인해 해수면 높이가 최대 721cm까지 높아지면서 오징어배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해 오징어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이 기간에는 오징어 물회와 내장까지 통째로 굽는 오징어통구이를 파는 식당에서 조차도 산 오징어를 맛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17일과 18일 날씨가 맑아지면서 오징어배들이 조업에 나섰고, 18

일 수확은 절정을 맞았다.

18일 찾은 근흥면 신진도수산물시장에는 마치 오징어 풍어를 아는 듯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일임에도 수산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만차였다.

이날 오징어 20마리 1상자 가격은 소비자들로 5만 원. 저렴하지 않은 산지물가였지만 신진도수산물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었다.

항구쪽 수산시장이 오징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거리는 사이 수산시장 뒤편 음식거리에서는 오징어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오징어 냄새를 맡고 어느새 수산시장 뒤편에도 소비자들이 북적거렸다. 음식거리에서는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오징어를 견져 올려 만든 오징어 물회

와 함께 호일로 감싸진 채 솟불에 구워지고 있었다. 호일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강렬한 오징어 특유의 냄새까지 풍기며 붉게 잘 익은 오징어가 자태를 드



러냈다.

그대로 도마 위에 올려진 통구이 오징어는 검은 먹물과 내장이 잘 어우러져 마치 오징어순대를 연상시키며 입맛을 자극했다.

수산시장 뒤편 식당기를 찾은 한 소비자는 “이 시기가 아니면 오징어물회와 통구이를 맛볼 수 없을 것 같아 수산시장을 찾게 됐다”며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인 태안에서 잡

히다니 신기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다는 김아무개 씨는 “태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소식을 듣고 맛보기 위해 먼 길을 왔다”며 “산지에서 직접 신선한 오징어를 맛봐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평일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산시장을 찾은 것에 또 놀랐다”고 설명했다.

수산시장에서 오징어를 판매하는 중



▲숯불에 구워진 통오징어는 신진항 최고의 별미다.

◀오징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가게앞이 북적이고 있다.

도매인 A씨는 “오징어는 날씨에 따라 가격대가 들쭉날쭉하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 수확량이 많아 2만 원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오징어철이 곧 수산시장도 대목인만큼 오징어를 구입하려 오는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분이 상하지 않게 친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함박웃음을 보였다.

/태안신문 제공

## 서산 6쪽 마늘 판로 다각화…올해 8억원 매출

### 대도시 직거래·온라인 판매

### 추석맞이 온라인몰 특판전

**[서산]**서산시가 올해 ‘서산6쪽마늘’ 온·오프라인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도시 직거래장터 현장판매와 온라인 판매 등으로 판로를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시는 6쪽마늘 출하기에 맞춰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대도시 농협 유통센터 및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형 유통매장과 강남구청 등 대도시 직거래를 통해 6억2000만 원 상당을 판

매했다.

지난 7월 2일에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직거래 특판전을 개최해 4000만 원의 마늘을 판매하기도 했다.

본격 택배 판매를 시작한 8월부터는 자체 전화 주문 접수 및 온라인 판매를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6쪽마늘을



판매 중이다.

시는 소비자가 가정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24일 공영 TV홈쇼핑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추석을 맞아 9월8일까지 서산드레몰과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6쪽마늘 등 150여 품목에 대해 최대 25% 할인 특판전을 운영한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은 여러 경로로 입증된 만큼 전국 각지에서 구매가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제공

## 치매환자의 ‘공공후견인’이 되어 주세요

### 태안군, 주민 400여 명 대상

**[태안]**태안군이㈔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8개 읍·면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가치매책임제 정책에 따른 ‘치매공공후견인 제도’에 따라 후견인으로 일할 후보자

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그의 권리를 대변하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후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대리 역할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등이다.

이번 후견인 양성교육은 지난 17일 군청 대강당(태안읍·소원면), 18일 안면농협 회의실(안면읍·고남면)에서 실시했으며, 19일에는 군청 대강당에서 원북면·이원면·남면·근흥면 주민 대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안군 제공

## 홍성군, 홍주읍성 북문 문루 복원 추진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 10월 중 실시설계 착수

**[홍성]**홍성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홍주읍성 북문 문루 복원’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홍주읍성 북문은 2017년 발굴조사를 거쳐 전체적인 면모를 확인했지만, 문루의 규모 및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복원된 홍주읍성 북문.

고증자료가 부족해 2020년 문루를 제외한 체성부와 옹성만 복원됐다.

군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 금년까지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문루 복원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홍주읍성 내 임시주차장 공간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2023년도에는 조양문 주변 성곽을 정말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양문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역사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홍성군 제공

## ‘가족 100세 건강대학’ 참여자 모집

### 예산군, 31일까지 전화 접수

**[예산]**예산군보건소가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가족 100세 건강대학’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수명 연장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자살율이 감소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에 발맞춘 건강수명 연

장을 위해 ‘가족 100세 건강대학’을 개최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참가 신청은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 또는 건강상담실(041-339-6077~6080)을 통해 할 수 있다.

건강대학은 9월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2일 수료식까지 총 7회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진행된다.

/예산군 제공

##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요”

###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미리 만큼 양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우니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하나 늘어갑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은 더 나이가 먹어서 예전보다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지만 공부를 더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글로 적어보고 싶습니다.

### 섭섭한 바람

한글반 내 친구 성은 유가고요 고주장 단지 같이 아담하지요

속싹 지우개도 빌려주고요 기름 먹인 가죽처럼 책도 잘 읽어요

월요일에 만나요 헤어질 때는 섭섭한 바람이 지나가지요



정동안 어르신  
금강종합사회복지관

# 궁핍의 미학

## 내포칼럼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개발도상국가에 1조원대 지원  
혁신센터 건립 지식·경험 전수  
도상국들 한국 벤치마킹 줄이어

절박함이 한국 기적의 원동력  
DNA에 처절한 생존근성 각인  
글로벌 'K-썸씽' 바람 일으켜

개인적으로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상당한 금액 (거의 1조원대)을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과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우리나라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개도국 현지인들의 가장 흔한 질문은 한국은 어떻게 해서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한국 보다 더 잘 살았거나 형편이 더 좋았는데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더 어렵고 더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잘 사는 나라가 계속 잘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못 살던 나라가 주월을 하여 더 잘사는 것은 모든 개도국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미래에는 한국과 같아 되고 싶다는 가슴 뛰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적의 진정한 비결은 무엇일까? 필자는 한국인만이 겪은 "결핍"과 "절박함"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겪지 못한 한국인들만의 가난과 궁핍, 생존의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고, 치열하게 만들었으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고 경쟁을 즐기며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게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고 처참한 나라중의 하나였다. 40여년 동안 나라를 통째 잃었다. 겨우 독립이 되는가 싶더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 그것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고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어서 같은 민족을 죽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다. 엊그제 덥친 겪으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상처를 입으며, 더 이상 상처 날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Miserable Korea"였다.

당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

라 생존하느냐 였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의 레토릭이 필요 없는 가장 처절하고 절실한 배수의 진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다. 그냥 살기 위해 전진했던 그 처절한 생존 근성이 원하는 원하지않는 한국인의 DNA로 체화되었다. 우리가 인지하던 안 하던 우리 문화와 사회에 임태되었다. 처절했던 만큼 그 강도는 세다. ODA지원을 받는 지금의 개도국과 지원을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결핍의 경험과 절실함의 차이'다.

궁핍이나 어려움, 절실함은 우리 성장의 원동력, 변화의 에너지이고 소중한 자산이다. 원해서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인은 자신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흔히 한국인은 목표 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을 선호하며,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며, 경쟁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것이 음악과 춤,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와 음식 등 각 분야에서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K-Something을 만든다.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정치적 민주화, 한국인이 그간 겪었던 결핍감, 박탈감, 절실함, 수치심, 분노, 시샘, 경쟁심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난과 어려움, 백척간두의 처절함과 절박함이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고 성공의 에너지가 되었다. 궁핍의 반전이고 결핍의 에너지이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계속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까? 수많은 진단과 원인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반전과 역전을 창출할 수 있는 저력과 근성을 아무나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 만만찮은 나라이다.

## '義',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 - 내포역사인물길 제2코스

오늘 걸어갈 길은 백월산 정상을 지나 병오의병비로 향하는 길입니다. 백월산을 내려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안내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오의병비라고도 불리는 '홍주병오의병주둔유지비'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에는 1906년 병오년에 민종식을 중심으로 봉기한 의병 600여 명이 이곳에서 집결한 후 홍주성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길의 한 쪽 구석에 있어 이 길을 걷는 분들도 그냥 지나치기 쉬울 것 같은 이 안내판과 비석, 우리는 이 비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한말 유학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발령과 신분제 폐지로 대표되는 사회 개혁에 반대하며 수만 명이 연편한 상소를 올리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때로 이들을 세상의 변화를 부정한 고리타분한



호주병오의병주둔유지비

양반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말 유학자들이 주도하였던 의병 활동마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병 활동은 그들이 행동하는 실천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자는 죽은해하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각각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로 보았습니다. 그 중 의(義)의 단서가 되는 마음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토록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자신이 옳지 못함'입니다.

의병들은 '자신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쇠퇴하고 국권이 일본에 의해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수오지심은 향촌에 묻혀 살던 유학자들을 의(義)를 좋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 비록 자신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 책임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지는 않으신가요? 한말의 의병들은 국권마저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옳지 못함'을 먼저 생각하고 부당함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마주함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찾을 것 같지 않은 이 길 위의 비석을 보며, 나의 삶에서 자신의 수오지심을 생각하고 반성해봅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 서천 명물 한산모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돼야

###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가을걷이가 끝나고 첫눈이 내릴 즈음 집집마다 빨랫줄에는 태모시가 걸려 있던 것이 서천겨울의 풍경이었다.

가난한 시절은 지났고 모시를 삼던 어머니들이 연로하신 뒤로는 모시를 삼는 것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어릴 적 추억으로만 남았다.

모든 과정이 수공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배우는 과정 또한 까다롭고 노동력에 비해 수익이 적다보니 이제는 이를 배우거나 직업으로 삼는 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여름옷의 대명사' 한산모시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한산모시의 전통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늦게 만나 제기됐다.

1500년 역사의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계승할 만한 농업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산모시는 삼국시대부터 1500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농업으로 파종, 허락을 지지와 관심을 당부해 본다.

생육, 수확, 껍질 벗기기, 말리기 등 모시농업 전 과정에 걸쳐 100% 수작업 농법에 의한 자연친화적 농업인 만큼 농업유산 지정의 타당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직물의 세계적 우수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서천지역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귀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 이러한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다음 세대에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 무엇보다 모시의 근원이 되는 모시 농업의 유지가 중요하다.

한산모시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모시풀 유전자원 보호 정책 및 재래종 재배 확대 방안, 모시 농업 후계자 양성, 태모지 수매가 보전 및 휴경지 활용, 모시 재배지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다행히 서천군과 충남연구원은 지난해부터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최근 서천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만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산모시 농업의 중요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해 본다.

## 11번째 책 '내 작은 연인'

###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6)



소중애 동화작가

에서 번이가 말했단다.

"소중애 선생님과 결혼 시켜 주세요"  
번이 아빠가 머리를 콩 쥐어박으며 말했단다.

"그만 해라."

그러자 번이가 울면서 사정했단다.

"결혼이 안되면 약혼이라도 시켜 주세요."

번이는 정말 특별하고 이상한 아이였다. 나는 그 당시 당구에 푹 빠져 늦은 밤까지 놀다가 집으로 가곤 했다. 이것을 안 번이가 밤에 당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니면 안돼요."

나는 번이를 명하니 내려다봤다.  
얘가 다섯 살 맞아? 번이는 씩 웃었는데 다음 날도 늦은 밤까지 당구장 앞에서 기다렸다. 어린 얘가 늦은 밤 까지 당구장 앞 골목에 서 있는 것이 불안해서 나는 그 좋아하던 당구치기를 그만 두었다.

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나는 팔봉 초등학교로 전근갔다. 5월, 번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나왔다. 번이가 내 이야기만 하면서 우울해하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했다. 내 허락을 받고 번이는 뒷주머니에 칫솔을 꽂고 팔봉까지 날 만나러 왔다. 1983년 천안으로 이사하던 날, 해미에서 지키고 있던 번이는 자전거로 한없이 따라 와 날 울렸다.

이 밖에도 번이의 특이한 이야기는 차고 넘쳤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서 글로 쓰기가 어려웠다. 11년이 지나서야 책으로 엮었다.

# “거친 씨름판에서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홍성 갈산 출신 임경택 장사  
작년 이어 금강장사 2연패  
다양한 기술·전략 경기 운영

**[홍성]**“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글귀들을 좋아해요. 나태해지지 않게 늘 도전 정신을 복돌아 주거든요.”



자신의 필살기로 상대선수를 제압하고 있는 임경택 장사.



백세공연단 이유진 단원, 최건철 단원, 박효홍 단원, 윤정현 단장(왼쪽부터)

신이 건강하기를 바라며 백세공연단으로 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현 단장과 이유진 단원, 박효홍 단원에게 노래 공연 봉사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나’라는 존재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일까. 백세공연단은 허투루 공연한 적이 없다. 이들은 트로트 장르에 맞춰 의상을 직접 준비해 입었고, 음향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요양센터에서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직접 장비를 구입해 갖고 다녔다.

“전에는 갈산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어서 체육시간에 씨름을 자주 했어요.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저를 인상 깊게 본 선생님의 권유로 씨름부에 들어가게 됐고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을 수 있어서 하던 씨름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임경택 장사는 갈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씨름부가 있던 광흥중학교로 진학했지만, 중학교 3년 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또래 선수들에 비해 발육이 느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장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씨름은 어린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다른 길은 쳐다보지 않았다. 오직 씨름뿐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태안고등학교에서는 인생의 은사를 만났다. 당시 태안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은 개인 사비로 임 장사에게 보약을 지어다 줄 정도로 물심양면 애쓰며 제자를 지도 했다고 한다.

데뷔 첫해 임 장사는 제73회 선수권 대회 3위, 제56회 대통령기 대회 우승, 제5회 춘천소양강배 대회 3위 등 쟁쟁

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임 장사는 지난해 고성 대회에서 생애 첫 금강장사에 등극하며 꽃가마까지 올라탔다.

그리고 지난 6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대회 결승 경기(5전 3승제)에서는 대회 2연패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김민정(영월군청) 선수와 명승부를 벌인 끝에 또 한번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올해 2월 백년가약을 맺은 새신랑 임경택 장사는 이번 대회에서 생애 두 번째 꽃가마에 올라 결경사를 맞았다.

임 장사는 평소 반려견 2마리를 돌보며 아내와 함께 홍성의 신혼집에서 자낸다고 한다. 임 장사의 아내는 명동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아내에게 늘 배우는 게 많고, 아내도 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은 거죠.” 차분하고 침착한 이미지의 임 장사는 힘보다는 기술과 전략으로 승부를 내는 노력한 경기 스타일을 갖고 있다.

“주특기인 돌림배지기 기술이 대학 시절까지는 잘 통했는데, 프로무대에



임경택 장사.

서는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힘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력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술과 전략을 토대로 전반적인 경기운영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임 장사는 프로답게 단순명료한 계획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복잡하거나 다양한 미래 계획을 갖고 있진 않아요. 단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홍주신문사 제공

## 주부들 뭉친 ‘백세공연단’ “트로트로 활력을”

각종 노래 경연대회 휩쓸어  
수준급 공연 봉사로 ‘호응’

**[당진]**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누군가에게 힐링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백세공연단 역시 노래를 좋아하는 열정 주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난 2017년 노래봉사단으로 뭉쳐 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윤정현 단장, 이유진 단원, 박효홍 단원은 노래 전문지도사를 취득해 노래 강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무대에서 넘치는 끼를 선보이고 있다.

윤정현 단장은 “트로트 장르를 좋아하는 저와 우리 단원들 그리고 남편 최건철 씨가 함께 모여서 노래 봉사를 하기 위해 뭉치게 됐고, 그게 벌써 5년이 됐다”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여러 기관 및 요양센터를 방문해 노래 공연을 펼쳤다. 그래서 공연단의 이름도 어르

또한, 지난 2019년 윤정현 단장을 주축으로 백세공연예술협회를 창단했고, 2021년 전문안무팀 라온제나도 결성해 더욱 알찬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백세공연단은 공연 봉사는 물론 어느 무대에도 오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 함께 참여하며 각종 상을 휩쓸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6일 백세공연예술협회 회원 8명이 꽃보다트로트 팀을 결성해 제1회 충남트롯경연대회에서 윤수현의 손님온다를 댄스와 노래로 실력을 마음껏 펼쳐 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백세공연단은 다른 장르와 협연해 이색적인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힘과 활력을 주고 싶다고 희망했다.

윤정현 단장은 “앞으로는 다른 장르 와도 콜라보해서 백세공연단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당진신문사 제공

## 서산시 헌혈 보유량 ‘안심단계’ 유지

정기 ‘헌혈하는 날’ 운영 귀감

**[서산]**‘서산시 헌혈하는 날’이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264명의 시민이 참여, 214명이 채혈에 성공했다.

봉사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8월 15일 현재 기준 AB형 9.1일, A형 6.2일, B형 8.2일, O형 5.4일을 확보하고 있어 안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산소방서에서도 지난 10일 소방 공무원·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정적인 혈액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과 봉사의 뜻을 모아 의미를 더했다.

서산소방서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헌혈은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헌혈 봉사단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헌혈은 지난 2월 참여 이후 두 번째이며 정기적 또는 긴급 요청이 있을 시 매번 참여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7월 12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헌혈자도 헌혈 장소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콘티비충남방송 제공

## 제가 들어줄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짐도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365일

24시간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태안군, 제18회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개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

'태안 서해랑길 걷기 여행' 도

**[태안]**태안군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8회 태안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및 '태안 서해랑길 걷기 여행 프로그램'이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모래조각 페스티벌은 태안군이 주최하며 '꽃과 바다 태안에서 즐기는 모래조각체험'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3일에는 '예술과 함께하는 모래조각 체험교실'이 열려 다양한 모래조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일본·대만 3개국 전문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열리는 모래조각 국제 경연 및 작품 전시를 비롯해 예술공연 등이 함께 펼쳐진다.

4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연대회와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이 펼쳐지며, 샌드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둘째날 펼쳐지는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연 대회의 경우 40개 팀 300명이 경연에 참가해 열띤



지난 2018년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됐던 모래조각 페스티벌 및 걷기 체험행사 모습.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대상 1팀엔 50만 원이, 최우수상(1팀)과 우수상(2팀), 인기상(3팀)에는 각각 30·20·10만 원의 상금이 텁별로 주어진다.

모래조각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되는 태안 서해랑길 걷기 여행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은다.

태안군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의 '코리아돌레길' 중 태안이 포함된 '서해랑길'을 걷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 참석 후 서해랑길 70코스 왕복 8.6km를 약 2시간 30분간 걷게 된다.

걷기 여행객과 관광객, 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신두리 해수욕장과 사구 일원을 포함한 코스로 진행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바람과 모래가 빚어낸 1만 5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최대 해안사구가 있는 신두리 해변에서 자연·모래·사람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축제의 향연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신두리를 찾아 초가을의 낭만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래조각 페스티벌 및 서해랑길 걷기 여행 참가 신청은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모래조각 경연 40팀, 걷기 여행 100명) 마감된다. 단, 걷기 여행의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태안군 제공

## 추억 불러일으키는 바느질 '인형'

서해미술관, 오수익 작가 전시

**[서산]**서산시 첫 공식 미술관인 서해미술관(관장 정태궁)에서 오는 30일까지 오수익 작가의 '새물내 인형이야기' 작품전이 개최된다.

'새물내'란 뜻은 '햇빛에 잘 마른빨래에서 나는 냄새'를 말한다. 햇빛 냄새는 오수익 작가에게 그리운 엄마 냄새기도 하다.

오 작가는 "물질의 풍요가 극에 달할수록 마음의 궁핍은 커져만 간다. 감정은 메마르고 상처는 쉽게 받는다. 더없이 풍요로운 지금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라며 "나의 인형들은 이런 풍요 속의 가난을, 메마르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신비한 주문과도 같다"고 했다.

또 "한 땀의 바느질과 한 조각의 소박한 천을



오수익 작가의 바느질 인형 작품.

연결하는 매 순간마다 나는 잊어버린 순수의 동심과 잊고 지냈던 엄마의 온기를 되찾는 기쁨을 맛본다"며 "나의 인형들을 만나는 이들에게 그 기쁨과 치유가 전해져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서산시대 제공

작은 미술관 휴, 3인 초대전 개최

**[청양]**청양군청 작은미술관 '휴'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2달여 동안 '3인 초대전'이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오픈식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회장 지순자) 회원들이 참석해 작가 소개 및 작품 설명,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변선화(청양) 작가와 최미경·주현아(공주) 작가가 50여 점의 서양화를 선보인다. 작가들은 모두 그룹 및 단체전, 개인전

등 화려한 전시경력을 자랑한다.

대표작은 '어제의 하루' (변선화), '궁남지' (주현아), '추억 속으로' (최미경)가 있다.

이번 전시는 청양군 주최·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 청양군생활미술협회가 공동 후원한다.

한편, 2021년 7월 개관한 군청 작은 미술관 '휴'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무료 전시 공간이다.

/청양신문 제공

## 삶과 태도에 관하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책은 변호사 조우성 씨가 직접 겪은 인생 이야기를 담은 수필이다. 책의 구성은 하나하나의 단편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술하였으며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부터 사업상 겪는 갈등, 가족 간의 분쟁을 해결해가는 이야기들을 두 줄의 책으로 나눠 담았다.

본 내용 중에는 근래 방영했던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일부 에피소드

의 원작으로도 차용되며 더 관심을 받기까지 하였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를 가르치는 변호사'라는 별명을 지녔는데, 지난 25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연을 가진 의뢰인을 만나왔다고 한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멋지게 극복한 한 사람, 자만심에 빠져 성공이란 꾹대기에서 추락해버린 사람, 누구보다 아군이라 여겼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사람 등등 때론 따뜻하고, 때론 씁쓸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서서들의 서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조우성/서삼독/2022)

충청인의 詩香

## 시낭송가의 꿈

하늘이 주신 달란트  
시  
그리고 낭송

어쩌다 좋은 시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가슴  
시와 함께 잠들고  
시와 함께 눈 뜬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잠들고  
홀로 깨어 읊조리는 밤  
시훈(詩魂)의 바다로 노 저어 간다

시와 음악과 낭송이 하나 되는  
뜨거운 밤은 지나가고  
빈 가슴의 불꽃으로 타올라  
새아침 친란한 빛으로 떠오른다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시낭송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내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때로는 간절한 외침이다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  
심흔(心魂)의 샘물이다

시를 낭송하는 일은  
스러져 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노래이다



이순희 시인·시낭송가

·한국시낭송가협회 주최 전국시낭송대회  
(시낭송가인증서 취득)  
·문예비전》 신인상시) 당선

편무석 시인 첫 시집 출간

태안 문인으로 활동 활발



**[태안]**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 순수문화 동호지 '흙빛문학', '작가마루'를 통해 시작 활동에 입문한 편무석(사진) 시인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모은 첫 시집 '나무의 귓속말이 떨어져 새들의 식사가 되었다'가 겉는사람 62번째 작품으로 출간 되었다.

청년 시절 꿈 많은 국문학도였던 편무석 시인은 한동안 시를 떠나 외면하듯 살아왔다.

녹록지 않은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외지를 떠돌다가 고향 안면도에 돌아왔고, 땅에 온전히 뿌리내린 후 다시 펜을 들었고 지역 문수 문학 동호지 '흙빛 문학'을 통해 작품들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간 땀방울을 흙치며 쓴 푸아 푸 편의 시가 이번 시집으로 탄생했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삶은 각자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지 자문하게 된다. 우리 인생의 온갖 갈등을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일까?

때론 법전의 한 줄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구하는 법이거늘, 사람들은 "그냥 법으로 해결해"라며 무심하게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수록 의외로 그 인간관계가 쉽게 풀리는 일이 종종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간다. 그 과정을 통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충남도서관 유재열 사서

# “생명산업 농업 대우받는 지역 만들겠다”



## 김복만 제12대 전반기 제1부의장

국가 뿌리산업 식량안보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발전 위해 앞장

도민 삶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갈 터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 선출 소감은 =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1부의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제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여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균형 잡힌 발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겠다. 견제와 협치 속에 모범적 의회 상을 세워나가며,

도민에게 환영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면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겠다.”

### 앞으로 전반기 의회 활동 방향은

= “도의회 도의원은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도민이 추구하는 것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싶다. 특히 충남은 한국의 중심으로 교통부터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상당히 좋은 측면에 해당한다. 기업 유치가 참 힘들지만, 기업 유치를 통해 충남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은

= “옛날 고려 인삼의 명성을 되찾아 한국 인삼의 경쟁력을 강화, 세계적 가고 싶다. 금산의 경우 인삼농업 시스템을 통해 연간 3천 톤 이상의 인삼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국 최대 인삼 유통시장으로 연간 6천 톤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70~80%를 차지하며 인삼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연간매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핵심 산업이다. 특히 금산인삼은 지난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이러한 인삼이 전

례 없는 위기에 휩싸여 난항을 금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은 막히고, 가격 급락으로 많은 인삼 농가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금산을 포함해 모든 인삼 농가에 힘이 되어 주고 싶다. 말 그대로 옛날 고려 인삼의 명성을 되찾아 세계적 위상 제고는 물론 농업 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 지방의회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언은

= “지방의회가 부활 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조직, 제도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은 고무적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의원 4명당 1명, 내년부터는 의원 2명당 1명만 배치하도록 제약을 뒀기 때문이다. 점점 복잡해지는 도정을 진정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력 보좌를 통해 예산심의의 등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뤄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고, 의원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충남 주요 현안 사업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태양에너지를 농축한 먹을거리를 인간에게 전달,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업은 탄소중립과 함께 달성해야만 하는 산업이자 다른 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산업이다. 그러나 늘 경제 논리에 밀려 훌대와 무시를 받아온 것이 농업이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자 바탕이 되는 농업과 농업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가야 한다. 특히 편안한 영농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문젯거리가 되는 고령화 및 인력난도 함께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에게 한마디

= “수해를 입은 도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돼있는 지역 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인구 감소로 인해 어느 지역이나 인구 늘리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도의원 한명 한명이 충남도를 걱정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항상 소신 있는 자세로 애정과 관심 갖고 도정과 의정에 격려 부탁드린다.”

# “도민 안전과 행복 위한 연대와 협치”

## 홍성현 제12대 전반기 제2부의장

공정성장·균형성장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발전 강화해 갈 터  
소외계층 지원에도 힘써갈 것 강조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제2부의장 선출 소감은 = “저에게 충남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장 단에 포함된 것에 무한한 영광이지만 사실 의원 당선 자체에도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도민 대표로 입성한 의원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경험하겠다. 또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 제12대 도의회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충남도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꼼꼼히 챙기고 소외되는 부분 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다. 도민 행복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달라.”

### 앞으로 전반기 의회 활동 방향은

= “도민에게 최적화된 의회 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제8대, 10대 그리고 이번에 12대 의원 등 징검다리 당선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 비록 연이어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의회 안과

밖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한 시간이 큰 약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초심을 계속해서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그 노력이 다시 12대 도의원으로 선택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제12대 의회는 특히 단단한 연대와 협치를 통해 의회 발전과 충남도 발전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 구조는 결국 조직의 외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저해 요소에 불과하다. 갈등보다는 협치와 연대를 통해 서로 힘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충남도가 발전해 갈 수 있을지 오로지 그 고민만을 해나가겠다. 도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남도 발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도의회가 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 “도의원은 전반적으로 자기 지역을 떠나 충남도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지역을 예로 든다면, 제 지역구가 천안이다. 속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천안시는 잘사는 동네인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한다. 전국적인 불균형성장은 천안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돼있는 특정 동(아파트 단지) 외에는 낙후된 읍면이 더 많은데 무조건 잘사는 동네로 인식되는 것부터가 그렇다. 인구 70만 도시 천안에서 서북구에만 수영장이 있고 동남구에는 하

나도 없다. 이런 것만 봐도 낙후 편차를 쉽게 알 수 있다. 천안을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지역적 불균형 격차를 메워, 충남도가 고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가겠다. 또 소외된 계층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제10대 의회에서도 꾸준히 발달 장애 학생, 난독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학력 격차 해소 문제를 다뤘었다.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민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도의원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충남도 발전을 위해 도내 낙후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 지방소멸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언은

= “공정 성장, 균형성장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낙후된 지역에 생활 기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단순 선심성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충남에 거주하는 청소년층, 젊은 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성해 간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수영장 건립의 경우 당장 수영장 건립에 드는 소요 예산은 100억(토지 제외) 가량이 든다. 예산 소요가 많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한번 지어놓으면 100년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젊은 층의 복지 혜택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에도

### 느리겠지만

큰 도움이 된다.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유입을 외쳐본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그 최우선에 충남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에게 한마디

=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원이 된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 항상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항상 충남도민을 위해, 특히 낙후된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할 수 있는 도의원이 되겠다. 또 항상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의원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우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죄송한 말씀 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및 직원들이 수해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 농가 침수피해 복구 일손돕기

## 부여·청양서 농작물·토사 제거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18일 충남도의회 5개 담당관실(총무·의사·홍보·입법·예산)과 기획경제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회·교육위원회는 청양군 남양면 고추농가와 부여군 은산면의 포도 시설하우스 등을 찾아 피해농작물과 토사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

을 벌였다.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부여군과 청양군 등 충남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 도로 유실,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 등 시설피해가 잇따랐으며, 특히 부여군에서는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도의회는 19일에도 농수산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여군 은산면 피해농가에서 각종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농가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수해복구 일손 돋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위원장 인터뷰

**“도민 행복과 건강 최우선 할 터”****③복지환경위원회 - 김응규 위원장**

**행동하는 일꾼으로 민의 전달해갈 것 강조**  
**일 잘하고 도민의 마음을 실천하는 위원회 만들어갈 것 다짐**

제12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선출 소감은 =“아산시의회에서 4~6대 의원으로 활동했고, 6대 의장까지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평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준 동료의원들 덕분에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 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앞으로 2년간 복지환경위원회 활동 방향은 =“복환위는 지난 2020년 7월 충남도의회에 신설된 위원회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19와 탄소중립을 포함한 보건 복지, 환경 분야를 두루 다루고 있어 그 중요도가 크다. 위원들과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도내 아픈 곳은 물론 불편한 곳 등을 두루 살피고 어려운 힘을 다해 줄 수 있는 ‘일 잘하고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일 잘하고 도민의 마음을 어루

만지는 위원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해가겠다.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 여기고 꼼꼼히 도정을 살펴 가겠다.”

제12대 의원으로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첫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도를 만들고 싶다.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체 도민의 20%를 넘을 때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충남도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2022. 7월 현재)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춰 정비가 시급하다. 폐쇄된 환경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강·행복형 커뮤니티가 조성돼야 한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 육아 양육에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송파모녀법(2014년)이 만들어져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완화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보완이 중요하다. 특히 복지 대상을 찾아 제도를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가겠다. 셋째,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도 건설이다.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가족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보육 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급식을 받는 것

이 현실이다. 기관별로 차등 지원되는 급간식비의 개선을 통해 도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겠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석학 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문학관을 그분 고향인 아산시에 건립하는 것이 그의 창조적 문학을 기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 장관이 추구해온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 아산 일부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에 힘을 쏟겠다. 현재 4개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왕복 1시간가량 걸리는 원거리로 학교에 다닌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4,000세대를 넘어야 하는 초등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과 자녀를 원거리 통학을 시켜야 하는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다.”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에게 한마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지치고 힘드신 줄 안다. 도민 복지를 다루는 복환위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지역민원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겠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권력은 그 지역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에게 있다는 신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의를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며, 그것이 도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 여긴다. 도민께서 어려움을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유쾌하고 밝은 창구가 됨과 동시에 행동하는 일꾼이라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돋는다****도의회,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달 17일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1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정 아카데미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직무에 필요한 3개 핵심과정으로 꾸려졌으며, 연차별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과정으로 예산 및 결산 분야 전문가인 김인철 지방의회연구소 전임교수가 예·결산 기본 개념,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과정 등을 교육했다.

이어 23일 진행된 2차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교수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과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진행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의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8건 심의·선정  
정책위원회, 실태 점검 및 자문 추진**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17일 2022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정책위는 연구용역과제의 내실화와 활용 강화를 위해 사전 심의를 수행했고, 향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을 평가하고 활용·관리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2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8건을 심의·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연구모임 대표의원 김명숙)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 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이종화) ▲충청남도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모색 연구(〃 흥성현)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전의현) ▲충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방한일)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선태) ▲취약계층 면거리 실태 및 복지 정책 방안 연구(〃 이연희)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개선방안 연구(〃 신영호)이다.

정책위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활용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및 현장답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의 주요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 및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에 힘쓸 방침이다.

이완식 정책위원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할 맛 나는 농어촌 만들 것”****④농수산해양위원회 - 정광섭 위원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 주력  
도민 모두의 행복과 이익에 긍정적 영향 줄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제시 강조**

또 농어업인의 권리향상과 농수축산업·산림·해양산업에 대한 경제성을 활발히 형성해가겠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도 함께 확보해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제12대 의원으로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지역발전을 스스로 견인할 수 있는 성장 연합 확보를 위해 권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적 현상이긴 하지만 충남도 역시 인구와 소득격차 심화로 불균형과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구(태안)인 안면도 국제명소화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꽃박람회 재주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서해안 마리나산업 육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책 제언을 해나가려 한다. 지역에 청년이 돌아오고 도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데 이바지하겠다.”

도정 주요 현안 사업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충남도는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와 농어업인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할 기준과 분야·목표가 재정립돼야 한다. 또 큰 틀에서 농어촌·농어업·식품·환경 내에서 흘어져 있는 사업 재정립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정이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강력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 강화로 연구와 기술

력을 향상,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갈 것이다. 더불어 농어업인 불안감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 고부가가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태안군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서 발급이 절실하다. 안면도의 경우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75%에 달한다. 이중 주변이 도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사유지는 1633필지이며, 완전 면적 768필지로 47%를 차지한다. 사유지 임에도 건축법상 도유지에 둘러싸여 있다 집이 오래되어 낡아도 수리만 가능하지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집을 수리하는 데도 한계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수십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인데도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도민이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팔고, 매각 수입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

**앞으로의 각오**

=“민선 8기 충남도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비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도민의 행복 지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또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농사랑에서 마음을 전하세요

# 농사랑 추석선물전

충남 농특산물과 함께 더 큰상생을 도모합니다.

## 농사랑 베스트 선물세트



+20% 쿠폰



아침농원

**아침농원 사과1호**

50,900원

할인가 **48,355원**

제수용 사과9~12내외 3.6kg



농업회사법인(주)연스토리

**연잎밥**

37,100원

할인가 **35,245원**

연잎밥 160g x 10개

+20% 쿠폰



지야

**한우 명품 1호**

318,000원

할인가 **241,680원**

등심+안심+채끝등심/각 500g



(주)아보에프엔씨

**프리미엄 6호 선물세트**

80,000원

할인가 **36,290원**올리브오일 250ml x 2병 +아보카도  
오일 엑스트라버진 250ml x 2병

+20% 쿠폰



부여대봉곶감영농조합법인

**대봉곶감 선물세트 3호**

60,000원

할인가 **51,395원**

20개입 / 90g내외 / 개당



내국양조

**능이주, 송이주 세트**

48,000원

할인가 **42,845원**

능이주, 송이주 750ml 1병

+20% 쿠폰



금산흑삼

**홍삼에브리진생 1+1**

170,000원

할인가 **60,420원**

300ml(10ml x 30포) X 2박스

+20% 쿠폰



가마산양봉원

**야생화꿀**

30,000원

할인가 **25,175원**

1kg(튜브형)

+20% 쿠폰



만인밥상

**예산쌀**

37,900원

할인가 **28,310원**

쌀 10kg

+20% 쿠폰



삼다리한과

**삼다리 선물세트 1호**

66,000원

할인가 **59,470원**

삼다리 선물세트 1호

상품 구매는 농사랑 웹사이트 추석 기획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농사랑”을 입력하세요 ▾

농사랑 추석 기획전  
바로가기 QR코드농사랑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바로가기 QR코드

고객센터

041-539-4557  
041-539-4558